

##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과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남윤진\* · 채정현\*\*

갈매중학교 가정과교사\* ·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

---

##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and Needs of Self Supervision Related to Home Economics Subject Matter

Nam, Yun-Jin\* · Chae, Jung-Hyun\*\*

*Home Economics Teacher, Galmoe Middle School\**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HE) teachers' perception and needs on self supervision related to HE subject matter. Using the methods of survey and interview, 177 samples were collected. For collected surveys,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percentage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an SPSS/Win (ver10.1)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iddle school HE teachers recognized that self supervision related to HE subject matter was absolutely needed to expand the improvement of techniques for teaching instructions and the width of knowledge on the studies on textbook.

Second, the middle school HE teachers recognized the necessary parts of self supervision related to HE subject matter as HE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studies on textbook contents, and HE education philosophy in order.

Third, the middle school HE teachers recognized that it would be helpful in improving their HE class and expertise in order of field survey, participation in various training programs, utilization of mass media, participation in societies for researches and meetings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co-teachers among the types of self supervision.

---

1) 교신저자: Chae jung-hyu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eonwongun Chungbuk 363-791 The Republic of Korea  
Tel: 043-235-3758 Fax: 043-231-4087 E-mail: jchae62@hanmail.net  
본 연구는 한국교원대 연구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Fourth, the middle school HE teachers needed the reduction in miscellaneous duties, less pressure for time, restoration of teachers' desire, support of physical resources (improvement of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classrooms and special rooms), economic support and various support programs (expanding th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raining and society and establishment of a database for relevant materials, etc.) to facilitate self supervision.

As such, the middle school HE teachers' overall recognition on HE-related self supervision became significantly higher. To enhance the HE-related expertise,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concrete and active support for HE education, philosophical area and the studies on textbook contents as well as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HE in which teachers' demand was high. In addition, the HE teachers wanted to have an easy and quick access to various HE-related data; therefore, it would be urgent to summarize scattered relevant data and support the HE teachers more systematically.

**Key words:** 가정과(Home Economics), 가정과교사(Home Economics teacher), 장학(supervision), 자기장학(self supervision), 수행(performance), 인식(perception), 요구(need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가정과교사는 대분류인 전문가 영역 중 교육 전문가에 속한다. 교육 전문가는 다양한 교육수준에서 학문에 대한 이론 및 실재를 가르치고 해당 학문분야를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강의안, 교재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한다(통계청, 2000). 위의 내용에 따르면, 가정과교사는 중등학교에서 교육전문가로서 가정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과교사는 장기간의 교육에 의하여 습득된 지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며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는 교육 전문가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대체로 일반직이 가질 수 없는 것으로써 끊임없는 자기연찬과 자기혁명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교직은 그 성격상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곧 스스로의 수양을 쌓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생활 그 자체가 자기향상과 직결되어 있기에 그 어떤 직업보다도 평생교육의 개념

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적인 자기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직업인 것이다(강률, 2002).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교수활동이다. 교수활동에 있어서 수업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며,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활동이 바로 장학이다(김한술, 2004). 즉 장학이란 교사의 교직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장학의 유형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교사 개인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자기장학이라 한다(이윤식, 1999).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 개선을 위한 자기장학에 있어서 가정과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정과교사는 교과학습지도·학생생활지도·업무수행의 역할 외에도 가정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밀려오는 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 심화 없이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과교사는 스스로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적

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가족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급속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사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과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자기장학이 필요하다(박명희, 2006).

가정과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자기장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행해진 연구는 거의 없다.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연구가 있으나 그 주제는 가정과교사의 역할 및 자질(이종이, 1997; 김유정, 2005; 박미정, 2006), 가정과교사의 역할 수행 실태(기순임, 1997; 김순주, 1999; 장명희, 2003), 가정과교사의 연수(기순임, 1997; 김순주, 1999; 최미선, 2001; 송미선, 2006) 등에 관한 것이다.

자기장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발표된 연구로는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자기장학에 대한 수행 실태(남윤진·채정현, 2007)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자기장학에 대한 수행 실태만을 알아보다 자기장학에 대한 가정과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 자기장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기장학의 주체인 가정과교사 스스로 자기장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면 자기장학 활성화 방안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지를 위주로 한 양적 연구라서 교사 자신이 현장에서 느끼고 요구하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지법과 면담법을 병행하여서 중학교 가정과교사들의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 및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를 세밀하게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교과관련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는 무엇인가?

## II. 관련 문헌 고찰<sup>1)</sup>

### 1. 장학의 개념

장학의 개념에 대해서 김남순(2001)은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지도·조언하는 실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고, 남정걸(1999)도 장학이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사들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는 일”이라 하였다. 또한 이윤식(1999)은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제반 지도·조언 활동”이라 하였고, 정태범(1998)은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제공되는 지도·조언·정보제공·자원봉사 등 일련의 전문적·기술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장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장학이 무엇이나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또 시대에 따라 그 접근법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수업을 향상·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장학의 대상은 “교원(교사)”이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장학”이라 귀결 지을 수 있겠다.

### 2. 장학의 유형과 자기장학

장학의 유형은 장학의 개념 접근 방식이 다양하듯 장학의 발전과정과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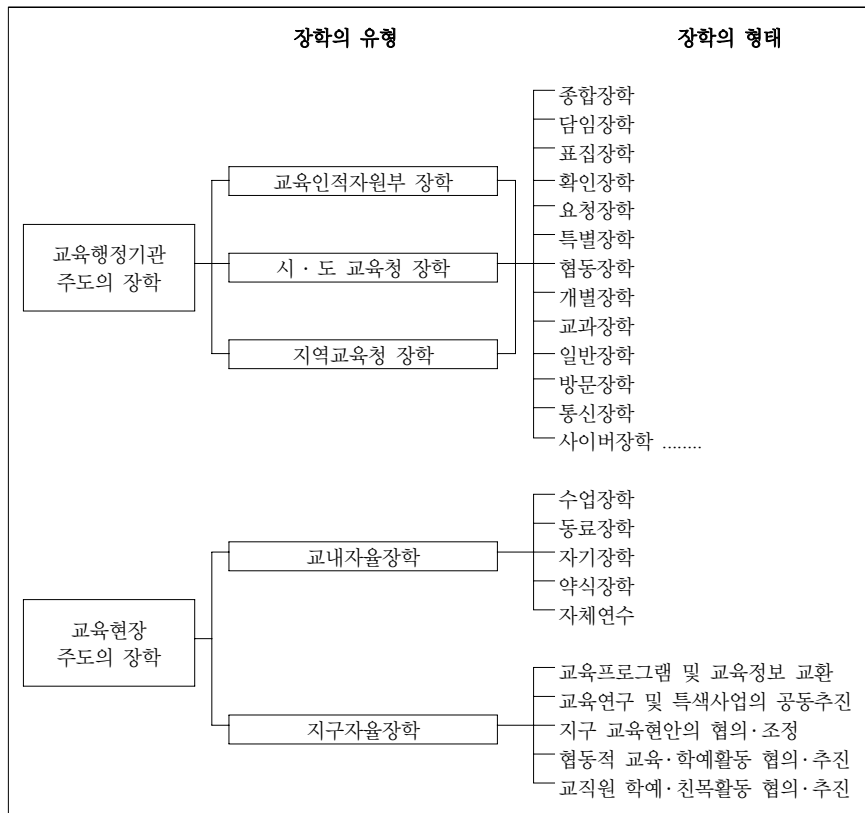
1) 본 연구는 2007년도 6월에 본 학회지에 발표한 자기장학에 대한 수행실태 논문의 후속 논문이기에 관련문헌 고찰에는 그 논문에서 다른 내용(자기장학의 개념 및 과정, 자기장학의 방법, 자기장학에 대한 선행연구)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루지 않은 내용(장학의 개념 및 유형)을 소개하였다.

다. 예컨대 강영삼(1994)은 교육 조직의 수준에 따라서 장학의 유형을 문교장학, 학무장학, 수업장학, 임상장학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김운태(1995)는 장학의 유형을 장학의 주체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정장학(교육인적자원부 장학, 지방교육기관 장학)과 학교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내 자율장학(임상장학, 동료장학, 자율적 장학, 행정적 장학)으로 분류하였다.

이윤식(2001)은 장학의 유형을 장학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크게 교육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장학과 학교 현장에서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이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성격이 강한 장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교육행정 기관이 주도하는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장학은 다시 교육인적부 장학, 시·도

교육청 장학, 지역교육청 장학으로 나뉘며 교내 현장 주도의 장학은 교내 자율 장학과 지구 자율장학으로 나뉘어 진다고 언급하였다. 교육인적부 장학, 시·도 교육청 장학, 지역교육청 장학과 같이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장학의 형태는 종합장학, 담임장학, 표집장학, 확인장학, 요청장학, 특별장학, 협동장학, 개별장학, 교과장학, 일반장학, 방문장학, 통신장학, 사이버장학 등이 있다. 교내자율장학의 형태는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그리고 자체연수가 있다([그림 1] 참조).

수업장학은 직접적으로 교사의 수업기술과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제공되는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말한다(이윤식, 1999). 이는 교장·교감(외부 장학요원·전문가·자원인사 포함)이 주도하는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 강한 지도·조언 활동으로 단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수



[그림 1] 장학의 유형 및 형태

출처 : 이윤식(2001). 학교경영과 자율장학. 교육과학사.

업장학은 원칙적으로 교장·교감의 주도하에(필요한 경우 외부 장학요원, 전문가, 자원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임상장학, 수업연구, 그리고 마이크로티칭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경력이 짧은 교사나 수업기술의 향상이 필요한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료장학은 교사의 교수기술 향상과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교사 상호간에 협동적 노력을 하는 과정이다(주삼환, 2003). 같은 학교 내에 있는 동료는 쉽게 만날 수 있고 행정계층에서 오는 위화감 없이 오히려 친근감을 갖는 분위기에서 도와줄 수 있으며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정과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약식장학이란 교장·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학급순시나 수업참관을 통하여 교사들의 수업활동과 학급경영 활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활동이다(정태범, 1998). 약식장학은 교장·교감이 개략적인 절차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장학활동이라는 점에서 일상장학이라 칭할 수도 있다.

자체연수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의식개혁, 교직 실무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내 자체 인사나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학교 안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남정걸, 1999). 학교 단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장의 주관 하에 학교 교육행정 실무와 학교내의 관심사항 및 교육활동 전개에 따른 현안사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며 교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으며 관리자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학교경영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이용주, 200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기장학이란 [그림 1]에서 보듯이, 교육현장 주도 장학에 포함된 교내 자율 장학의 한 유형으로 교사 개인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남윤진·채정현, 2007).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

##### 가. 설문지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이다. 2005년 교육통계연보에 근거하여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연구보조사 1명과 함께 E사와 D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2,377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 중학교 중 가정교과교사라고 명시된 이메일을 시·도별로 12개(울산광역시)에서 112개(경기도)까지 총 767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보내어 회수한 자료는 총 187부로 그 중 177부(회수율 39.1%)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나. 면담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법이 갖는 응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에 재학 중인 중학교 가정교과교사 4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면담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면담 대상자는 모두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여교사이고, 가정교과를 2.5년에서 6.5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다. 또한 전공 및 임용교과에 따라서는 가정교육을 전공하여 가정교과로 임용된 교사,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여 가정교과로 임용된 교사, 가정교육을 전공하여 부전공인 기술교과로 임용된 교사, 기술교육을 전공하여 기술교과로 임용된 교사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전공교과와 발령교과가 모두 다른 면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가정교과가 기술교과와 [기술·가정]이라는 과목 명칭으로 병합된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표 1〉 면담 대상자의 특성

	연령	성별	지역	교직경력	가정교과 교수경력	전공교과	발령교과	교수과목	면담일	면담시간
A	30세	여	경기	6.5년	6.5년	가정교육	가정	가정	2006.08.07	45분
B	29세	여	대전	6.5년	6.5년	식품영양	가정	가정	2006.08.08	30분
C	31세	여	경기	7.5년	4.5년	가정교육	기술	기술가정	2006.08.07	40분
D	29세	여	경기	6.5년	2.5년	기술교육	기술	기술가정	2006.08.08	40분

2.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

가. 설문지법

설문을 위한 조사도구는 이윤식(1999)과 주삼환(2003)의 문헌을 바탕으로 자기장학과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총 15문항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와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발한 설문지는 가정교육 전문가 1인, 가정교과 교사 5인, 국어과 교사 2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표 2>에서 보듯이,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그리고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은 총 4문항(자기장학의 필요성, 목적,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장학의 유형)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선다형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는 크게 자기장학을 방해하는 요인 1문항과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정도 5

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선다형과 Likert 5점 척도(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매우 필요하다)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교직경력, 학교 소재지, 최종학력, 발령교과, 교수과목을 묻는 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정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3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설문지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회수된 자료는 SPSS/Win(ver 10.1)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나. 면담법

면담은 2006년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면담에 몰입될 수 있도록 조용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정교과 교사 4인을 대상으로 각각 30분에서 45분 정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연구자의 접근 편리성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에게 의뢰하였고, 연구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후 자발적인

〈표 2〉 조사도구의 영역, 세부내용, 문항 종류, 문항수

영역	세부 내용	문항의 종류	문항수
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	교과관련 자기장학의 필요성	선다형	1
	교과관련 자기장학의 목적	선다형	1
	교과관련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	선다형	1
	가장 필요한 교과관련 자기장학의 유형	선다형	1
교과관련 자기장학의 활성화 요구	교과관련 자기장학을 방해하는 요인	선다형	1
	교과관련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정도	Likert 5점 척도	5
일반적 특성	교직경력, 학교 소재지, 최종학력, 발령교과, 교수과목	선다형	5
전체			15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다.

면담질문으로는 중학교 가정교과교사가 느끼는 가정과수업을 할 때의 어려운 점, 가정과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실태, 가정과수업 개선을 위한 요구 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유형은 주로 반 구조화된 유형으로 이 질문을 통해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면담을 이어갔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가정과수업을 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어려운 점을 극복하시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앞으로 수업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수업 개선과 전문성 신장의 노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등이었으며, 실제 가정과 수업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및 개선을 위해 해왔던 노력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았다.

면담법의 자료분석을 위해서 다음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 단계로, 면담 중 녹취한 내용을 한글 200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사(transcription)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어구를 제외하고 자연스러운 구어체의 문장으로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다음 단계로 전사한 자료를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인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를 위한 요구 등 두 부분으로 분류하였으며, 위 분류를 바탕으로 면담 내용과 설문 결과의 공통점을 추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났듯이, 조사 대상자의 교직경력은 11년에서 20년 이하(38.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1년 이상(32.8%)이었으며 10년 미만(28.8%)이 가장 적었으나 그 비율은 서로 비슷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학교 소재지는 중·소도시(59.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별·광역시(25.4%) 그리고 읍·면(15.3%)의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석사 출신이 반 정도(49.7%)이며 학사 출신도 44.1% 정도 이었으며 박사출신은 6.2%(11명)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교사는 가정교과(73.4)로 발령받았으며 기술교과로 발령받은 교사는 22.6% 이었고, 기술·가정교과로 발령받은 교사도 4.0%(7명)나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78.4%)는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같이 가르치고 있으며 오분지 일 정도(21.6%)에 해당하는 교사는 가정교과만 가르친다고 응답하였다(<표 3> 참조).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내 용	N(%)	일반적 특성	내 용	N(%)
교직 경력	10년 미만	51( 28.8)	최종 학력	학사	78( 44.1)
	11~20년	68( 38.4)		석사	88( 49.7)
	21년 이상	58( 32.8)		박사	11( 6.2)
	합 계	177(100)		합 계	177(100)
학교 소재지	중·소도시	105( 59.3)	발령 교과	가정	130( 73.4)
	특별·광역시	45( 25.4)		기술	40( 22.6)
	읍면	27( 15.3)		기술·가정	7( 4.0)
	합 계	177(100)		합 계	177(100)
교수 과목	가정교과만	38( 21.6)			
	가정 및 그 외	137( 78.4)			
	합 계	175(100)			

## 2.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자기장학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인식, 자기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과영역, 자기장학의 유형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 가.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의 필요성

중학교 가정교과교사들이 자기장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조사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99.4%)은 매우 필요하다(81.3%)거나 약간 필요하다(18.1%)라고 응답해 중학교 가정교과교사들은 자기장학의 필요성을 대체적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가정교과교사들은 자기장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남운진·채정현(2007)의 연구에서 약 반 정도(56.5%)의 가정교과교사만이 자기장학을 열심히 실행한다고 응답하여 자기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만큼 실제로 자기장학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의 목적

중학교 가정교과교사들의 자기장학 목적을 알아본 결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68.2%가 학생들에게 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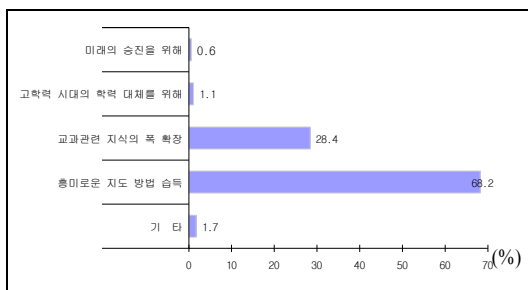
로운 학습지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28.4%는 교과관련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 밖의 목적은 응답률이 매우 낮았는데 1.1%는 고학력 시대의 학력 대체 및 보완 기능을 위해서라고 하였고, 0.6%는 미래의 승진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의 자기장학 목적은 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과내용을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 전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장학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최영화(2005)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교사의 49.2%가 교수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3.3%가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중학교의 일반 교사들과 가정교과교사들의 자기장학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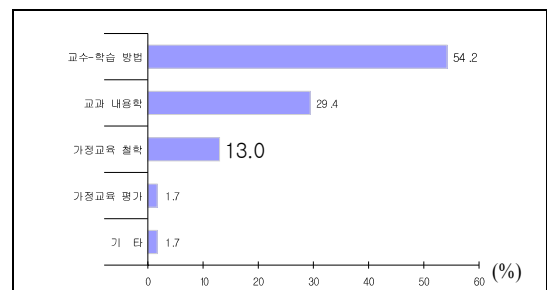
### 다.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과영역

중학교 가정교과교사들의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그림 3]과 같이, 약 반 정도(54.2%)의 가정교과교사는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영역이, 삼분지 일(29.4%) 정도는 가정교과 내용학 영역이, 다음으로 13% 정도는 가정교육 철학 영역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교육 평가 영역과 기타는 각각 소수(1.7%)의 교사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가정교과교사는 가정과 교수·학습, 가정교



[그림 2] 자기장학의 목적



[그림 3] 자기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과영역



과 내용학, 가정교육 철학, 가정교육 평가의 순으로 자기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결과는 남윤진·채정현(2007)의 연구에서 가정교과교사가 자기장학을 수행하는 교과영역의 순서와 일치하였다.

가정교과 관련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에 대해서 가정교과교사들이 어떤 교과 영역을 필요로 하는 지, 왜 그 영역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각 영역에서 교사들이 힘들어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면담법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면담에 응한 가정교과교사들은 의외로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이나 가정교과 내용만큼 가정교육 철학 영역에서 자기장학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관련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 :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면담 대상 가정교과교사들이 가정교과 관련 자기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이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나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인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떨 때는 나 혼자서 신이 나서 수업을 하는데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A)

수업 방법에 있어서 유머 감각이 부족한 것이 아쉬워요. 아이들을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B)

자료가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아무래도 교과서 자체의 내용에 의존하게 되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재미없어서 힘들더라고요. (C)

특히, 기술교육을 전공하고 기술교과로 임용된 D교사는 가정교과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고 가정과수업을 함으로 인해 수업 그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매우 컸다.

‘가정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잘 가르치셨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이걸 어렵게 또 못 가르친 건 아닌가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대답을 못 해줄 때도 있고, 다음에 가르쳐준다고 할 때도 있고, 그냥 대충 맞춰서 말해 줄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반성이 많이 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D)

이와 같이 면담 대상 교사들은 가정과수업 자체가 흥미롭게 전개될 수 있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으나 바라는 만큼 수업을 실행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었다.

둘째, 가정교과교사들은 수업 방법 중 협동 수업 및 토론 수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면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기술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가정교과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가정교과로 임용된 교사들이 협동수업 및 토론수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수업을 운영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상호교류가 적은 게 가장 아쉽습니다. 협동학습·토론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고..... 예를 들어 정삼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서 튀어 오르게 해야 하는데 못 기다리고 내가 먼저 말해 버려요. (중략) 어떨 때는 나 혼자서 신이 나서 수업을 하는데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A : 가정교육 전공·가정교과 임용)

초임 3~4년 때까지는 조별 학습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너무 떠드니까 개별학습하고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학습자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많이 시도는 했었는데 너무 떠들고, 어떤 경우에는 옆 반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뭐라 하시고..... (B : 식품영양학 전공·가정교과 임용)

토론 수업을 잘 하려면 제 스스로가 그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토론 운영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늘 토론을 진행

하다보면 마무리를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할지 고민하다 흐지부지 끝내게 되요. (중략)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노하우가 없는 것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C : 가정교육 전공·기술교과 임용)

그리고 이러한 협동 및 토론수업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교사 스스로가 협동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며,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꼽았다. 또한 관련 수업을 위해 교사의 준비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협동 및 토론수업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작 교사가 그런 수업을 못 받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겠지요. 학생 수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연수 내용에서 교과내용학적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수업을 이끄는 방법을 가정교과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A)

중학교 1~2학년 아이들 40여 명씩 바글바글 있는 교실에서 협동수업을 하려면 잘 안되더라고요. (시간이) 45분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수업 시작하면 끝나고..... (A)

협동수업은 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해보고 계속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 하는데 그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가 힘들더라고요. 가령, NIE수업을 하려면, 200배 이상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

사실 협동수업 자체가 학생들의 활동이 많고 교사의 활동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수업을 하기 위한 교사의 준비작업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준비하기에는 귀찮은 거죠. 시간도 없고..... 그러다보니 또 내가 다 주도하는 수업이 되어버리고, 강의식이 되어버리고..... (A)

위의 면담 결과에서 가정과교사들은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협동 학습이나 토론법 등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수·학습법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자기장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실현장에서 협동학습법이나 토론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부족, 수업 시간의 부족, 그리고 준비하기 위한 의욕이나 시간 부족 등에서 교사 자신만의 개인적 자기장학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협동학습이나 토론법 등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는 특정 교수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수업 시간을 확대하며 가정과교사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교과관련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 : 가정교육 철학

설문지 분석결과 가정교육 철학 영역이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이라고 한 응답은 13.0%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 명의 면담 대상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정교육 철학 특히 왜 가정과교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자기장학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과수업을 진행하기 전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갖고 수업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수업을 하기 전에 왜 배우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답을 찾으면 수업을 할 때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스스로가 왜 배우는가에 대한 해답이 머리 속에 명확하지 않으면년부터 그 수업이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왜 배우는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서면 수업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C)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부족한 것, 즉 가정과교육에 대한 명확

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가정과수업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가르치는 교과목의 목표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스스로가 교과목의 내용을 의미 있게 느껴야 한다. 가정과수업을 하기 전 나름의 명확한 철학이 있지 않으면 수업의 초점을 잃거나 학생들에게 흥미롭지 않은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에서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내가 그걸 왜 가르쳐야 하나?’가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중략) 가령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나도 ‘내가 왜 이것 가르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중략) 저에겐 가정교과 내용학에 대한 우산살은 많았는데 정작 그 우산살을 모아 받쳐주는 (우산) 받침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찝찝했어요. (A : 가정교육 전공·가정교육 임용)

가치중립적인 기술교과에만 익숙해지다가 가치지향적인 가정과수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가정교과는 그 내용 자체를 수학이나 과학처럼 ‘뭐든 뭐다.’라고 가르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도덕 교과도 아닌 것이..... (중략) 가정 수업은 근본적인 것, 즉 ‘왜 배우는가?’,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C : 가정교육 전공·기술교육 임용)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중략) 한복 부분에서 다리 속곳부터 가르치는데 솔직히 이것 왜 가르치냐, 지금 입지도 않는데 왜 외우라고 시키냐..... (중략)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기도 벽찬데 아이들 외우기도 힘든 몇 cm 이런 것 까지 굳이 가르쳐야 하나라는 생각을 평소 많이 했어요. (중략) 그러니까 왜 배워야 하나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아요. (D : 기술교육 전공·기술교육 임용)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가정교육 철학 영역에 대한 자기장학 필요성은 설문지 분석결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면담 분석 결과에서 비중있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교사는 수업에 임할 때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등에 대한 가정과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기를 원하며 그 신념이 있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정과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가정과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재 삶과 미래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지 등에 대해서 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해설이 있어야겠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가정과교육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적과 자료 등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등 교사교육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 교과관련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 : 가정교과 내용학

설문지 분석 결과 가정교과 내용학이 자기장학이 필요한 교과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4%였다. 면담 분석 결과 임용 교과에 상관없이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교과내용학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가정교과로 임용된 교사와 기술교육을 전공하고 기술교과로 임용된 교사는 교과내용학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기장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의생활 부분에서 반바지 만들기 (부분이 어려워요). (중략) 식품영양학과 출신이다 보니 의생활 부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B : 식품영양학 전공)

실습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복 영역 같은 경우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막상 2학년 같은 경우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중략) 뭘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서 (오히려 수업)시간이 남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중략) 1학년 부분에서 [가족생활]하고 [영양소] 영역이 어려워요. 도대체 어느 선까지 가르쳐야 할지 좀 애매하고..... 교과서마다 다 달라서 그 수준을 정하기가 힘들었어요. (D : 기술교육 전공)

특히, 기술교육을 전공하고 기술교과로 임용된 D교사는 교과내용학에 대한 깊이 부족에 따른 자신감 결여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확실하게 맞나?’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이론적인 면에서 이게 정확한건가, 출판사의 지도안을 보고 가르치는 건데 이 지식이 정확한가,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했나,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까? (D)

위의 면담 결과에서 보면, 대학에서 가정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가정과교사로 발령을 받거나 가정교과를 가르치게 될 경우 수업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학부에서 가정교육을 전공한 자를 교사로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가정과교사로 임용된 자를 위하여 교과내용학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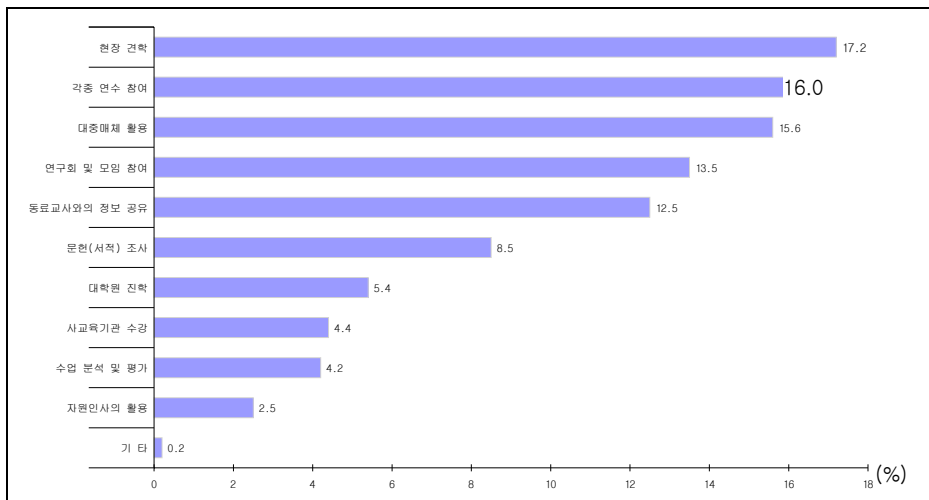
라.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 방법의 유형별 중요도

중학교 가정과교사들이 자기장학 방법 10가지 유형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

하여 가정과교사 자신의 실제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가정과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3가지만 고르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현장견학이 17.2%로 가장 많았고, 각종 연수 참여가 16.0%, 대중매체의 활용이 15.6%, 연구회 및 모임 참여가 13.5%, 동료교사와의 정보 공유가 12.5%의 순이었으나 그 비율이 골고루 비슷하였다. 또한 문헌(서적) 조사가 8.5%, 대학원 진학이 5.4%, 사교육기관 수강이 4.4%, 수업 분석 및 평가가 4.2%였고, 자원인사의 활용은 2.5%로 10가지 방법 중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자기장학방법의 유형별 실행 실태에 대한 연구(남윤진·채정현, 2007) 결과와 비교해보면, 자기장학을 위해서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현장을 견학(70.6%)하고 대중매체를 활용(99%)하고 동료교사와의 정보를 공유(70%)하여 이 유형에의 자기장학 바인법을 실행하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회 모임 가입(54.8%)이나 교과관련 연수참여(23.4%)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윤진·채정현(2007)의 자기장학 수행 실태에 대한 결과에서 나타난 문헌활용(90.3%), 대학원 진학(61.6%),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강의 수강(52.9%)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도에 비해서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자기장학 방법의 유형별 중요도

자기장학의 인식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자기장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주된 목적은 흥미로운 학습 지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함이며, 특히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영역을 자기장학이 꼭 필요한 교과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장학의 10가지 유형 중 현장 견학, 각종 연수 참여, 대중매체의 활용, 연구회 및 모임 참여, 동료교사와의 정보 공유 순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2.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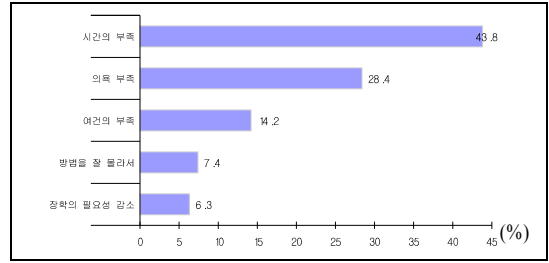
자기장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장학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조건에 따라 그 요구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 가.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을 방해하는 요인

중학교 가정교과교사들은 자기장학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그림 5]와 같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교사 자신의 의욕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8.2%, 경제적·환경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4.2%,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4%, 교직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이 축적되어 자기장학의 필요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3% 순이었다.

### 나.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자기장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학교 가정교과교사들은 앞



[그림 5] 자기장학 방해 요인

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건 별로 어느 정도의 요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이 5점 만점에서 모두 4점 이상으로 교사 스스로의 의욕 회복(4.71), 잡무경감과 시간적 여유 확보(4.63),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4.60점), 도서·자료·도구·장소 등 물리적인 자원의 지원(4.43점),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4.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기장학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면담한 결과 설문지 결과와 유사하게 교사 스스로의 의욕 회복,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 물리적 자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사 스스로의 의욕 회복

설문지 분석 결과에서 처럼 면담 분석 결과에서도 가정교육에 대한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교과교사들 스스로가 전문성 신장에 대한 의욕을 갖고 가정교과와 관련된 학회나 교사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엇보다도 제가 게을러서 수업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에 쓰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

<표 4>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정도

(N=174)

	교사 스스로의 의욕 회복	잡무경감과 시간적 여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물리적 자원 지원	경제적인 지원	전 체
평 균	4.71	4.63	4.60	4.43	4.27	4.53
표준편차	0.51	0.59	0.55	0.59	0.66	0.58

\*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매우 필요하다.

간이 지나버려서 다음 해에 쓰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노력을 좀 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도 부족하고..... (B)

학회나 교사 모임 등에 늘 귀를 열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꼭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더라도 노력하시는 선생님들만 봐도 ‘내가 이렇게 정제되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뭔가를 찾아야지.’라는 자극이 되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정교육의 큰 흐름과 방향 정도는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A)

교사들 스스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의욕 회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의 공유 문화 확대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설문지 분석 결과에서는 동료 교사와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면담 분석 결과에서 동료교사 자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등에 대한 내면적 공유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교사 문화의 폐쇄성이 문제로 드러났다.

교사 집단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문화도 너무 미흡하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너무 잘 하면 ‘너무 편다.’는 등, ‘통일해서 그냥 하자.’는 등의 말들을 해서 의욕을 꺾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A)

굳이 가정과교사가 아니더라도 교직 전반적으로 교사는 자립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죠. ‘이것 좀 여쭙볼게요.’하면, ‘아이, 저도 잘 몰라요.’하고 겸손해 한다고나 할까? 실제로 제가 필요했던 자료를 한 선생님이 갖고 계셨는데 전 결국 그 자료를 빌려달라는 말을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뭔가 모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벽이 교사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C)

따라서, 이러한 폐쇄적인 문화가 개선되어 동료 교사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문화가 확산될 것이 요구되었다.

누군가가 내 수업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같은 교과, 같은 학년의 교사들끼리 서로 수업

을 참관하면서 상호 평가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그냥 내가 봤다고 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략) 만약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가령, 학습활동지 하나만 보더라도 나는 늘 내 학습지에만 길들여져 있어서 내 학습지에서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학습지를 보니 도움이 되었어요.) (A)

제가 원하는 목적과 딱 맞는 연수를 찾기도 힘들고..... 사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자원이 바로 같은 과 동료교사입니다. (C)

저는 잘 몰라서 어떤 실습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 공개수업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시군요?> 예. 하지만 저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싶은데 정작 제 수업은 남(다른 교사)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교사의 마음이지요. (D)

위의 면담결과에서, 가정과교사의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동료 교사 자신에 대한 수업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나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나 문화가 형성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내어주고, 서로 수업을 관찰하여 배울 점과 고칠 점을 지적하는 등의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 2)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설문지 분석 결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요구는 평균 4.60점(표준편차 0.5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면담 분석 결과에서도 가정과수업의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구 수업이나 교과관련 연수 및 학회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을 요구되었다. 먼저, 연구수업은 교직에서 하기 싫

어하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분명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연구 수업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녹음하고 평가한 건 아니지만 연구 수업에 대한 오랜 기간의 준비 등이 발전을 가져와 주는 것 같아요. 계속 의식을 하다 보면 그 의식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좋은 교수방법으로 남겠지요.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에서는 연구수업이 부담으로 인해 하기 싫은 것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A)

또한, 교과관련 연수의 기회 확대를 요구되었고,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가정과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되었다.

직무연수 같은 게 있다면 받고 싶은데 대전 지역에서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충남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연수나 배움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교육받으시겠다는 뜻이지요?> 예. (B)

강제로라도 직무연수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달라지는 데 교사가 그대로이면 안 되잖아요. (A)

그 밖에도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와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것을 요구되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빨리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가령 동기유발을 위해 일반적인 사회문제나 뉴스에 나온 문제들을 제시해 주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빨리빨리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 어려워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고..... (A)

수업 방법에 관한 책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 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누군가가 다 찾아놓은 자료를 내가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아~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략)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

따라서 대중매체 및 인터넷의 이용에 대한 요구와 활용 비율이 높고 실제적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는 중학교 가정과교사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료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교과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위의 면담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연구 수업 및 교과관련 연수 및 학회, 교사 모임 등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정과교사의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기에, 가정교과와 관련된 연구 수업, 연수, 학회, 교사 모임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 3) 물리적인 자원의 지원

설문지 분석 결과 물리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5점 만점에서 평균 4.43점(표준편차 0.5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면담 분석 결과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기장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실 및 특별실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 실제 가정과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이 요구되었다.

뉴스를 듣고 ‘아~ 내일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 했는데 정작 그 뉴스를 보여줄 수도 없고(교실의 기자재 환경 열악), 다 말로 하려니 지루하고..... (A)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실하고 가정 실습실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것도 교실 하나 크기였다가 테이블만 여섯 개가 붙어 있고, 조리실습 할 때 필요한 싱크대나 가열대 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B)

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재봉틀이 있어서 간단한 고무줄 잇기, 반바지 만들기 등을 했었는데, 학교를 옮기고 났더니 재봉틀을 비롯한 기자재가 없어서 손바느질로 만들기를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D)

위와 같은 면담 내용에 비추어 보면, 면담 대상자들은 가정과교육의 특성상 현 사회와 가정에 관련된 문제를 발

빠르게 제시하여 가정과수업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하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실 내 수업 환경이 열악하여 자료를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열악한 특별실의 교육환경이 가정과교육의 특성을 살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기에 면담 대상자들은 교실 및 특별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를 종합한 결과, 동료 교사와의 공유 문화 확대를 포함한 교사 스스로의 발전 노력, 직무연수·관련 학회 및 교사 모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재교육 강화와 수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확대, 그리고 교실과 특별실의 환경 개선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인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정과과 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요구에 대하여 설문지법과 면담법을 병행하여 알아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자기장학이 흥미로운 학습지도 방법을 습득하고 교과내용학적인 지식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자기장학이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가정교과 내용학과 가정교과 철학 가정교육 평가 순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면담 결과,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교수·학습 방법 중 협동학습이나 토론법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였다. 특히 가정과 수업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왜 이 내용을 가르쳐야하는가에 대한 신념 즉 가정교과 철학에 대한 자기장학 욕구가 강하였다. 한편 학부 때에 가정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는 가정교과 내용학 영역의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부족한 내용 영역에 대한 자기장학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자기장학의 유형 중 현장견학, 각종 연수 참여, 대중매체의 활용, 연구회 및 모임 참여, 동료교사와의 정보 공유 등의 순으로 가정교과 수업의 개선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면담 결과에서 동료 교사 자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등에 대한 수업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넷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들이 자기장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잡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고 다음으로 의욕 부족, 그리고 경제적·환경적 여건 부족이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자기장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잡무경감과 시간적 여유 확보, 교사 스스로의 의욕 회복, 물리적 자원의 지원(교실·특별실의 제반 환경 개선 등), 경제적 지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연수 및 학회예의 참여 기회 확대,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원의 요구가 매우 높았다. 면담 결과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자기장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들과 수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이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가 강제적으로라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는 중학교 가정과교사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료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교과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특히 그들은 교실 및 특별실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 실제 가정과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사의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가정과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맞추어서 자기장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실제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교사의 특성과 요구에 맞고 가정교과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과 자기장학의 모형 개발



과 실제적인 지원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면담법을 병행하였는데 그 대상자가 특정한 연령대에 속한 소수의 교사로 한정되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여 본 연구에서 알아내지 못한 더욱 다양하며 깊이 있는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 루(2002). **고등학교 교사의 자기장학 활동 실태와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삼(1994). **장학론**. 세영사.
- 기순임(1997).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의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견해와 역할수행 및 전문성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순(2001).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 김순주(1999).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2005). 중등학교 가정교과교사의 교사효능감 유형과 관련변인.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17(2), 129-143.
- 김윤태(1995). **교육행정·교육신론**. 배영사.
- 김한솔(2004). **수업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기장학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진·채정현(2007).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의 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수행 실태.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9(2), 61-75.
- 남정걸(1999). **장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박명희(2006). 가정교과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의 방향. **2006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31-51.
- 박미정(2006). **가정교과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 탐색: 정체성과 임파워먼트 및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선(2006). 가정교과교사의 연수실태 분석 및 가정교과 연수의 방향. **2006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61-87.
- 이용주(2003). **중등 초임교사의 자기장학 의식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식(1999). **장학론**. 교육과학사.
- \_\_\_\_\_(2001). **학교경영과 자율장학**. 교육과학사.
- 이종이(1997).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의 가정교과교육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인식과 관련변인.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9(2), 31-45.
- 장명희(2003). 중등학교 가정교과교사의 교수 능력에 관한 교육요구 분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15(3), 2-22.
- 정태범(1998). **장학론**. 교육과학사.
- 주삼환(2003). **장학의 이론과 기법**. 학지사.
- 최미선(2001). 중등학교 가정교과 직무연수 실태 및 인식조사.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13(2), 85-99.
- 최영화(2005). **중학교 자율장학에 대한 교사의 요구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0). 한국표준직업분류. [http://laborstat.molab.go.kr/sub03\\_04.jsp](http://laborstat.molab.go.kr/sub03_04.jsp)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가정과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과 면담법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총 17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Win (ver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학습지도 기술의 향상과 교과내용학적 지식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자기장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교과와 관련하여 자기장학이 필요한 부분을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교과내용학, 가정교육 철학 영역이라 인식하고 있다.

셋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자기장학의 유형 중 현장견학, 각종 연수 참여, 대중매체의 활용, 연구회 및 모임 참여, 동료 교사와의 정보 공유 등의 순으로 가정교과 수업의 개선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자기장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경감과 시간적 여유, 교사 스스로의 의욕 회복, 물리적 자원의 지원(교실·특별실의 제반 환경 개선 등), 경제적 지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연수 및 학회에의 참여 기회 확대,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였다.

이와 같이,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자기장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교과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요구가 높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영역과 교과내용학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철학 영역과 가정교육 평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과교사들은 다양한 교과관련 자료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길 원하고 있으므로 흩어져있는 관련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12월 3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0일